

사회

# 광주교육청 비정규직 2855명 신분·정년 보장

### 전국 최초 관련 조례 내달 시행... 교육감 직접 채용·전보·관리

광주시교육청이 현재 학교 소속인 비정규직 직원 2855명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결원을 신규채용하는 등 이들의 신분과 정년을 확고하게 보장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마련, 시행한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 임금의 70% 가량을 받는 이들이 장기적으로 공무원과 같은 호봉제 도입 등을 요구할 경우 임금인상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제정한 '광주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는 그동안 각급 일선 학교장이 채용하고 관리하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앞으로는 교육청(교육감)이 관리하고, 결원을 직접 채용하는 내용이다. 시교육감은 이들에 대한 전보인사권도 행사한다.

조례시행으로 비정규직 직원 2855

명은 확고하게 신분을 보장받는다. 그동안 정년이 보장된 학교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도 해당 사업이 없었거나, 학교가 폐교할 경우 신분을 유지할 수 없었다.

시 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현재 관내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4932명을 정원으로 관리하고 이 가운데 무기계약직 근로자 2855명을 교육감에 관리한다.

직종별로는 급식실 조리원이 1077

명으로 가장 많고 교무실무사 295명, 사서·사서실무사 230명, 과학실무사 224명, 조리사 185명, 특수교육실무사 176명, 돌봄교실 강사 148명, 영양사 113명 등이다. 나머지 2077명은 한시 사업에 근무하고 있거나 법에 따라 근무연한이 정해져 있어 이번 전환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시 교육청은 전환 대상자들에게 앞으로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인상, 임금 하향금지, 수당 인상, 교통비 보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앞장섰다"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책임감과 역량 등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상생과 협력의 조직문화가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이번 정책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 지적이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임금 인상 등에 따른 재정부담은 시교육청이 지게된다.

3000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인력 관리를 한꺼번에 시교육청이 맡게 된 점도 큰 부담이다.

이들에 대한 인사권도 학교장에서 교육청으로 옮겨야 하는 학교 현장에서 이들을 관리·감독하기가 힘들어진 측면도 있다.

연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03분 해질 19시 03분 달맞이 17시 19분 달질 03시 23분

오후늦게 빗방울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늦게 남해안에 비가 오겠다.

광주	구름많음	24/29°C
목포	구름많음	23/28°C
여수	흐림	24/27°C
나주	구름많음	24/29°C
완주	구름많음	24/29°C
구례	구름많음	23/29°C
강진	구름많음	24/29°C
해남	구름많음	24/29°C
장흥	구름많음	24/29°C
순천	구름많음	22/29°C
영광	구름많음	23/28°C
진도	구름많음	24/29°C
전주	구름많음	24/30°C
군산	구름많음	24/29°C
남원	구름많음	23/29°C
옥산도	구름많음	24/28°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2.0~4.0m	경고	보통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2.0~4.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목포	00:19	05:49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5~2.5m		12:25	17:51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1.0~2.0m	여수	07:23	01:26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5~2.5m		20:03	13:2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0(목)	31(금)	9/1(토)	2(일)	3(월)	4(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23/27	24/29	24/31	23/31	23/30	23/29

## 교권침해, 학부모도 연대 책임

###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심리치료 받아

### “교사 입장만 대변” 학부모 단체 반발

학생이 교사를 폭행·협박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학부모가 학교에 가서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내용의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교원단체는 교육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환영의사를 표하는 한편, 학부모 단체는 약자의 권리를 더욱 침해하는 불공평한 대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8일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따르면 교권 침해 학생의 학부모를 소환해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학부모 등 학생 이외 사람이 학교 내에서 교사를 폭행·협박·성희롱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50% 까지 가중처벌한

다.

학부모가 갑자기 찾아와 생기는 교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별로 학교방문사전에약제를 지급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교권 침해로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본 교원은 일시적으로 수업 등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른 학교로 우선 전보시킨다. 교권 침해가 심각한데도 보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학교장은 징계한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 등은 “교권을 확립하겠다고 해서 가해 학부모를 가중처벌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현장에서 대부분의 학부모는 교사 앞에서 약자인데도 정부가 교원단체의 입장만 반영해 너무 편파적인 대책을 내겠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연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교통안전 사각 스쿨존

### 경찰, 9월중 집중단속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9월 한 달간 경찰·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과속·신호 위반·안

전운전의 무불이행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작년에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지역보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평균 2배가량 무겁게 부과된다.

이번 단속에는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시민신고제도를 활용,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경찰의 분석으로는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의 65.8%가 운전자의 안전의 무 불이행 때문에 발생한다. 연영기자

## 일본 1800년대 교과서 '독도는 한국 땅' 명기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내용이 담긴 일본 문부성 발간 1800년대 교과서가 공개됐다.

독립기념관은 일본이 독도를 역사적인 고유영토라는 주장의 허구를 밝히는 근대 초중등 일본지리 교과서 5점과 학생 및 일반인용 지리부도 2점을 발굴, 28일 공개했다.

이날 독립기념관이 공개한 자료 가운데 1887년 오카무라 마쓰다로가 편찬한 신찬지지(新撰地誌) 2권에 수록된 일본총도에는 일본 주변 섬을 가로줄 표기로 일본 영토임을 밝히면서 울릉도와 독도는 같은 표시로 조선방

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문부성이 1905년 발행한 소학지리용신지도(小學地理用新地圖) 맨 앞면에 실린 대일본제국전도는 류큐의 부속 섬은 물론 1894년부터 식민화한 대만, 일본 북부의 시마(千島) 열도까지 꼼꼼히 일본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으나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1905년은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 현에 강제 편입한 해이나 같은 해 문부성에 의해 발간된 일본 소학교에서 사용된 지리 교과서에는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하지 않았다. 연영기자



옛 전남도청 앞 회화나무가 강풍을 견디지 못해 밀동치를 드러낸 채 쓰러져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5·18현장 생생히 지켜보던 옛 도청앞 회화나무도 뽑혀

### 태풍 '블라벤' 상륙... 포충사 200년생 당산나무도

최대 풍속 51.9m/s의 태풍 '블라벤'이 광주지역 대표 노거수들마저 뿌리 채 뽑아버렸다. 광주시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앞 회화나무(수령 150년 추정)는 물론 광주시 남구 원산동 포충사를 수백 년간 지켜온 아름드리 당산나무도 예외는 아니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새벽 광주가 강한 바람을 동반한 블라벤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가로수 수백 그루와 함께 옛 도청

앞 회화나무도 힘 없이 쓰러졌다. 이 나무는 옆에 자리한 수령 300년의 은행나무와 함께 광주의 역사를 상징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현장을 지켰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앞두고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돼 전당 건립 후에 조정수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광주시는 회화나무의 수령이 오래된데다 최근 주변 공사, 뿌리 연약 등으로 인해 블라벤을 이겨내지 못한 것

으로 보고 있다.

이날 현장에 나온 임희진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광주 역사를 간직한 회화나무를 그냥 제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가지 일부를 자르고 다시 심어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충사 주변 도로에 자리했던 수령 2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당산나무도 도로 위로 넘어져 주변 교통이 통제됐다.

한편 블라벤의 강풍에 충북 괴산의 천연기념물 290호 '괴산 삼송리 소나무(일명 왕소나무)'도 쓰러졌다. 이 왕소나무는 높이 12.5m, 수간 둘레 4.7m에 이르고 1982년 11월4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령 600여년의 노거수다. 또 보은의 정이송송의 가지 일부도 부러졌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경찰청지정 운전면허 시험장

"공원같이 아늑한 학원전경"

트레일러 대형 1,2종보통 2종소형(오토바이)

휴일에도 접수·교육 합니다.

문자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깨끗한 환경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운영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확정
- 교재무료 배부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 셔틀버스 운행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신가동 사거리 본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